

강진읍시장새단장...밝고 쾌적한 시장으로 변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리모델링·환경 개선 경제활성화까지
8월까지 10억 투입 마무리...군민·시장상인 관광객 모두 만족

강진군이 오는 8월까지 강진읍시장 종합동 및 수산동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도비 6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0억원이 투입되며, 상인들과 지역민의 이용 편의성 제고와 안전한 시장 환경 조성으로 시장상인과 이용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장으로 전환된다.

강진읍시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강진을 지역상권을 지탱해 왔으나, 2010년 시설현대화

사업 이후 화장실 등 편의시설 노후화와 어두운 조명, 열악한 바닥 상태, 배수 불량 등으로 고객 불만과 상인들의 영업 여건이 악화되고 이용이 불편했다.

이에 따라 강진군은 시장의 내·외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화장실 3개소 리모델링(종합동 2개소, 수산동 1개소)으로 쾌적한 위생환경을 조성하고 어둡고 칙칙한 점포 내·외벽을 밝고 통일감 있게 도색한다. 점포 LED 조명 교체를 통해 환하고 생기있게 변화를 주고 전열 설

비 및 소화시설 설치, 소방안전을 위한 로고젝터 설치로 사고 예방 체계 강화 등 기초 안전 시설 개선을 통해 시장의 전반적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강진읍시장 수산동 특성에 맞게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수산동 바닥 방수 작업 및 배수관 정비로 악취를 제거, 다량의 물 사용에 따른 낡고 녹이 슨 스틸그레이팅 교체, 중앙 가판대 철거 후 수산물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장 조성 등 수산동에 특화된 정비를 추진한다.

향후 수산동 빈점포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상인이 만족하고 관광객이 찾는 체류하는 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장 외부에도 변화를 더한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마주하게 되는 종합동과 수산동 연결 통로를 도색·정비, 깨끗한 시장 이미지를 형성한다. 강진읍시장의 정체성을 살리고 관광객의 포토존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조형물 또한 설치할 예정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강진읍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15년만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외부 관광객도 찾는 활력 넘치고 머무는 공간으로 변화시켜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고 침체돼 있는 강진읍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장 상인들과 협력·소통을 통해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힘쓴다

종합 대책 보고회 개최

완도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폭염 등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 대책 보고회'는 읍·면·동·기상·전파와 부서별 대책을 공유하고 부서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잦고 폭염 일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빗물받이 정비, 하수관로 준설과 상습 침수 구역 정비, 산사태 취약 시설·급경사지·재해 위험 지역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보고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난 취약시설 관리 등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신우철 군수는 "사전 점검 시 위험 사항을 발견하면 즉각 조치하는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해남문화관광재단, 여름 시즌 개별관광객 인센티브 본격 추진

'해남쓰리Go-먹Go! 자Go! 즐기Go!'

(재)해남문화관광재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남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 '해남쓰리Go! 먹Go! 자Go! 즐기Go!' 여름시즌을 6월부터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남쓰리Go-먹Go! 자Go! 즐기Go!'는 해남군을 방문해 1박 이상 체류하는 개별관광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시즌별로 참여자를 모집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1박 2일 이상 해남에 머무르는 최소 2인 이상의 관외 관광객이며, 체류기간 동안 소비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소비금액에 따라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즌별 소비금액 상위 10팀에게는 해남군 농수산물 직영 소품물인 '해남미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 원 상당 포인트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봄 시즌 '해남쓰리Go'에는 총 60팀이 참여했으며, 4월 중순 조기 마감되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같은 반응에 힘입어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 시즌 역시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여름 시즌 신청은 5월 27일부터 가능하며 방문일 최소 3일 전까지 해남문화관광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남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을 앞두고 증가하는 개별관광객 수요에 발맞춰, 해남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장흥군, 걷기지도자 역량강화교육 실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장흥군은 5월 28일과 30일 지역사회 걷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걷기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령 인구의 증가와 함께 급증하는 무릎관절 등 근골격계 질환으로 걷기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실시됐다.

특히 전남은 무릎관절증 환자 비율이 8.64%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50대 이상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적절한 신체활동을 통한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교육과정은 총 2회로 나누어 운영되며, ▲관절·근육 운동과 낙상 예방 운동, ▲통증 및 체형관리 운동 등 실제 고령자 대상 걷기 지도에 필요한 실습 중심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발목, 무릎, 허리, 목 등 주요 관절 운동법과 함께 튜빙밴드 및 마사지볼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한 교정 운동법도 함께 다뤄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걷기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 특히 고령층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지도를 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걷기 프로그램이 단순한 신체활동을 넘어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 보조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

진도군, 암 예방 홍보요원 위촉식과 간담회

암 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와 가족 약 30명 위촉해 암 예방 캠페인

진도군민을 지키는 수호자
암 예방 홍보요원(암가드) 위촉식 및 간담회
일시: 2025. 5. 22.(목) 11:00
장소: 진도군 보건소 3층 다목적실

진도군 보건소는 최근, 지역사회에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재가 암 환자와 가족 약 30명을 암 예방 홍보요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요원 위촉은 암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자주 모임 회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독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암 예방 홍보요원들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암 예방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암 검진 홍보 릴레이 문자 보내기'와 '암 예방 10가지 생활 수칙 알리기' 등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